

# 섬에서 힐링여행과 봉사를...섬섬여수 볼런투어 떠나요

### 2026 세계섬박람회 사전 분위기 조성...금오도·횡간도 등 10개 섬 5~10월 매월 50명 정원 가고 싶은 섬 1개 선정 전달 20일까지 신청

여수 섬 10곳을 여행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섬섬여수 볼런투어'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섬섬여수 볼런투어'(Voluntour)라는 이색 봉사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섬섬여수 볼런투어는 여수의 10개(남면 금오도, 횡간도, 화정면 개도, 낭도, 사도, 상화도, 송여지도, 하화도, 삼산면 거문도, 손죽도)섬에서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할 수 있는 봉사 제도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월 50명 정원으로 봉사를 추진한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활동자를 모집, 이들은 5월1일부터 '섬섬여수 볼런투어'에 나선다.

여수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10개 섬 가고 싶은 섬 1개 선정 후 전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섬 여행과 정결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증명하면 심비(1만원)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여객선 탑승 또는 승선권과 정결 활동 결과물, 섬 여행을 담은 사진 3장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중 여수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볼런투어 활동을 통해 섬에 대한 무한한 가치 이해와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을 확장코자 한다"며 "더불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올해 처음 여행과 봉사를 결합한 '섬섬여수 볼런투어'를 진행한다. 행사가 열릴 금오도 비렁길 출렁다리 전경.

(여수시 제공)

## 곡성 난임부부 검사·시술비 지원 확대

### 보건의료원·온라인 신청

곡성군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난임 검사·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신을 원하는 곡성지역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에게는 가임기 동안 난소 기능 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난소, 자궁 등)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성은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과 여성 1인당 한 번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의료원을 찾아 신청하거나 온라인(문서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장

여 의료기관에 의뢰서를 낸 뒤 검사를 받고 추후 보건의료원으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곡성군과 전남도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난자 채취·동결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난자 냉동 시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신청일 기준으로 전남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30~40세 여성(결혼 여부 무관)에게 적용된다. 난소 기능 검사(AMH) 결과가 1.5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위기 청소년 아픈 마음 '다독다독'

### '전남 동부지역 마음 토크' 개강...음악치료사와 예술 치유

전남 동부권 위기 청소년 40여 명이 음악으로 마음 치료를 받는다.

GS칼텍스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2024 전남 동부지역 위기 청소년 마음 토크'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개강식에는 최호영 순천지정장과 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장, 문상봉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장, 김기용 GS칼텍스 대외협력부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마음 토크'는 2013년 시작한 이후 올해 9번째 운영한다. 현재까지 450명의 위기 청소년이 예술 치유를 받았다.

올해 40명의 청소년은 상·하반기로 나눠 1회 70분가량 12회에 걸쳐 예술 치유를 받는다.

참여 청소년들은 GS칼텍스 예술마루(여수)와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화여대 대학원 음악치료사들의 지도를 받아 작사·작곡·악기 연주 등을 경험한다.

연말에는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 지청장은 "위기 청소년 마음 토크는 사법기관의 선도 정책과 기업의 자원 투입, 대학의 전문인력 활용 등이 효과적으로 융합돼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킨 관·산·학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기용 부부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정서순화를 하면서 우리 사회 건강함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대한제국 황실가 역사와 차 문화

###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다음달 3일~6월 2일 특별전

보성군이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일인 5월3일에 한국차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도구전(圖)은 오는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 개막행사는 5월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1층에서 진행한다. 전시는 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3일부터 7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흥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이준 황손 등 대한제국 황실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차 도구와 서화, 조선왕실가에서 500년간 내려오던 진전다례, 별다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흥선대원군 괴석묵란도, 윤현궁 추사서첩, 사동궁 은다구 일체 등 74건 120여 점이다. 윤현궁(흥선대원군 가문), 사동궁(의친왕 가문), 낙산재(영친왕, 덕혜옹주) 3곳에서 대어한 차문화 유물들이다.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은 이번 전시에서 대한제국 황실가의 역사와 차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한국차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 차문화실, 2층 차역사실, 3층 차생활실, 5층 북라



다음 달 3일부터 한 달간 '대한제국 황실가 차도구전'을 여는 보성 한국차박물관 전경. (보성군 제공)

운지로 구성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茶)문화를 공개하는 매우 유익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홍백 기자 kyb@kwangju.co.kr

## 주민 참여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찾는다

### 고흥군, 6월까지 주민참여 리빙랩 문화자원 발굴·체험 개발 등

고흥군이 오는 6월 말까지 농경문화 소득화를 위한 '주민참여 리빙랩'을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진행한다

고흥군은 지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

고흥 풍양면 양리마을 주민 30여 명은 오는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리빙랩'에 참여한다.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이란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실현해보는 생활 속 실험실을 의미한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와 유한회사 두다의 전문가가 마을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



고흥군 풍양면 양리마을 주민들이 고흥 유자 등 농경문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이다. 참가자들은 농경 문화자원 발굴과 함께 체험 개발, 주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며 사업을 진행한다.

고흥군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대상지는 유자 과수원이 농지의 90% 차지하고 있는 풍양면 양리마을이다. 이곳에서는 고흥유자축제가 열린다. 고흥군은 고흥 유자, 우물터, 전통 놀이, 농

경 유물 등 다양한 농경문화 자원을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경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상품 개발로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양리마을을 농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낙중 기자 gjju@kwangju.co.kr

## "신기술 개발·활로 개척해 벤처생태계 대전환"

### 광양시 '전남 스타트업 포럼' 여수·순천 등 순회 정기 개최

광양에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25일 처음 열렸다.

이 행사는 광양시와 ㈜포스코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관했다.

전남 스타트업 포럼에는 전남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AC·육성기관) 벤처 캐피털(VC·투자 자금 회사), 투자자 등 전남 지역의 주요 창업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도 동참했다.

이들은 벤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고영화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가 '초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주제로 교육했다.

고영화 회장은 강연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해선 지역에 양질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강조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주최한 '전남 스타트업 포럼'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명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 경영을 위한 핵심 지침을 담아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교육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자금 조달과 효율적 관리"라며 "스타트업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급변하는 시대, 신기술 적용과 활용,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틈새시장

활로 개척 등 새로운 변화에 더 유리한 벤처기업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앞으로도 광양시는 전남도, 포스코와 함께 벤처생태계 대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스타트업 포럼'은 광양을 시작으로 매 주 수달 여수, 순천, 전남, 광양지역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